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6호 현대불교
2007년 9월 19일(음력 8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일체 만법을 다 닦치는 대로 맡겨 놓고 넘어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예수재를 지내 드리는 것은, 부모가 이다음에 환토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실 때에 무의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有)에서 물질적으로 증명하지 않게 잘 사실 수 있다는 뜻에서 예수재를 해 드리는 거죠.

또 돈이 있다면 스님들한테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을 받아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피와 살, 뼈를 다 받은데다가 열 달 내내 뱃속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니다. 이것만 해도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못 갖는데, 더군다나 마른자리 진자리를 바꿔 넣어 주시고 맛있는 걸 골라 먹이면서 이렇게 길러 주셨는데 무엇으로 다 빚을 갚으리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였으니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 자리와 한자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서 시주를 한다면, 부모의 이름을 쓰고 하지 않아도 시주를 해 드리는 것만은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도 없는데 빚을 얻어다가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병이 나서 고통이 무척 심하다면 지금 급하니 내 형편대로 여기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정성들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거를 계기로 삼아서 공부하면서 정성을 들인다면 빚도 안 지고 여러분의 병 나으니 좋고, 또 그 돈 모아서 도량을 지으니 좋고, 또 마음 공부를 하니 지혜가 넓어지면서 공부해지고, 이 도리를 아니 저승과 이승을 서로 회전해 가면서 삼라만상의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나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세세생생 창살 없는 창살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뿌리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유인이 됐을 때, 비로소 부처라고 하고 또는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내면 법신이요 몸을 움직여지면 화신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바로 문수, 자기 몸을 위해서 바로 보살입니다. 자기가 명이 짧은 듯하면 "나는 조금 더 있어 야지 않소?" 하고 자기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또 "나는 몸을 벗고 가겠소." 할 땐 그냥 자유껏 그렇게 갈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고등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 100%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산호세 지원이 있고 알래스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원이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정신 질환이든 뭐든 병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것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여복하면 옛날에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 "풍 천 막대기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풍간에다가 막대기를 기다리게 하나 세워 놓고선 거기다가 쓱쓱 씻었거든요. 씻을 종이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풍 천 막대기니라." 그랬거든요. 풍 씻은 막대기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가 말입니다.

무전기 즉, 듣는 것도 다 가지고 계시고 타심통, 즉 말하자면 남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거를 다 가지고 계시고 속명통 즉, 남이 지나온 거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신족통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굴리는 것이 바로 범륜입니다. 범륜! 그리고 누진통은 책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천세계가 다 공했으니 '주인공'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도록 이런 얘기를 잠깐 할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때에 따라서 금방 자식이 쫓아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도 없이 금방 "그래, 너 어디 갔다 들어왔니? 왜 늦게 들어왔니?" 이러거든요. 이런 자동적입니다. 금방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어보!" 그러거든요. 그러니 금방 남편이 됐죠. 또 안에서 부모가 말입니다. "아무게 아범아!" 하고 부르니까 "예."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금방 5분, 10분 사이에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 행을 하셨습니까? 하하하...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나 참나 나투고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 했습니다. 공했다 이겁니다, 주인공!

그러니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나참나 나투면서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비유한다면, 인간과 나무들이 공생 공용 하고 공체로서 이렇게 공기를 서로 주고받고, 즉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먹고 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으로 저 시계 같은 걸 돌려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쉼 없이 돌아갈 겁니다. 아마, 이런 걸 입증을 해서 지금 물질과학으로써 얼마나 광대무변하게 발전이 됐습니까? 그러나 심성과학으로써 천체심성 물리학이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연구했겠습니까? 마음 없이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에 복잡한 생각들이 느껴졌는데, 나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한다면 복잡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인공, 그 보배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일체 만법을 다 닦치는 대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닦치는 대로! 안되는 거를 '이거, 주인공에 아무런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 이런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되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대로 '어! 당신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안되는 것도 당신이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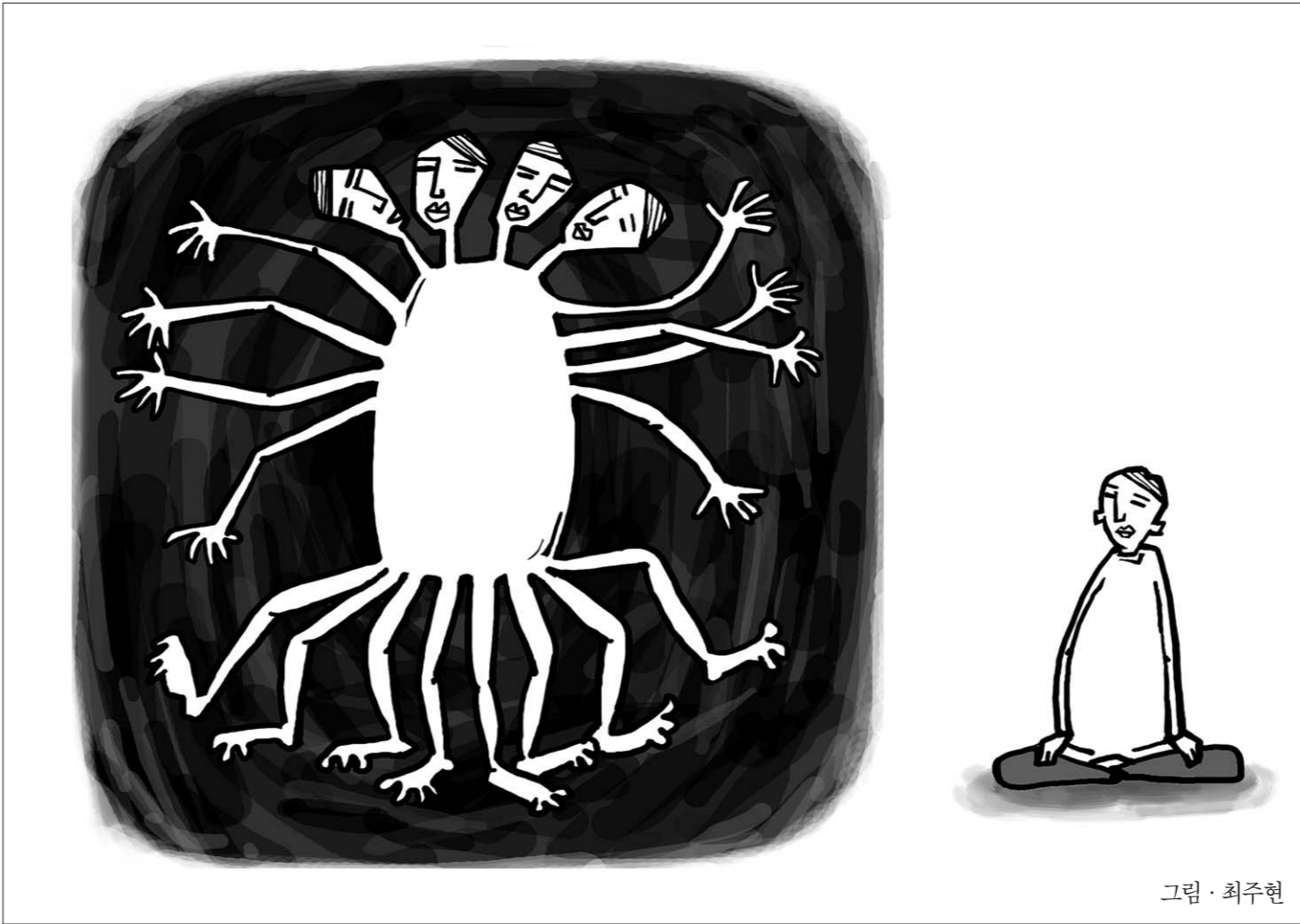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다. 왜? 사람을 만나야 "네 마음속에 주인공이 있으니, 그 보배가 거기에 있으니 거기서 하게 해라." 이럴 텐데 전화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부름을 해 줘야만 되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 심부름은 무슨 일이 돼서 심부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부름입니다.

다. 어떤 게 부처냐고 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되고... 여러분이 여기 가득 차 있지만 내 이 모습은 놔두고도 모습 없는 모습들이, 내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내가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멋진 묘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천안통 즉, 천체망원경도 가지고 계시고 천이통이라는 천체

책정기 즉, 누진통이 이 다섯 가지를 다 굴릴 수 있어야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도가 아니고 듣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전체 다 듣는다 하더라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 하나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삼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9기 교육)

본 교육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집중(단기속성 7일간) 교육을 받을 제 9기 학인스님을 모집 합니다 제방에서 수행과 기도 정진으로 교화와 포교에 전력을 하시는 스님들께음서는 범 종단 차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 9차 범음 범패 의식 교육에 수회 동참 하시는 시절 인연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 일시 : 불기 2551년 10월 1일(음 8월 21일) 월요일 - 10월 7일(음 8월 27일) 일요일
- 교육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륵굴 무각사
- 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동참비 : 입심만원(교육교재 지급/숙식 등 제반편의제공)
- 접수 기간 : 불기 2551년 10월 1일 까지(교육 입소 당일 접수가능)
- 접 수 : 011-604-8902(회장), 011-613-6497(총무) 011-604-9584(교무), 010-3639-2946(재무)
- 생활 습의는 대중 처소와 같이 합니다.(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 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육, 시식 등)
겉채비	(1) 사물다루는법 / (2) 민바라 / (3) 천수바라 / (4) 다계(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방법을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교육 방법으로 초심자라도 집전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수료증 수여 : 준회원 자격부여, 우수한 스님은 선별 심사후 정회원 입회자격 및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